

에밀리의 불안한 섹슈얼리티: 초서의 『기사 이야기』에서 기사가 하지 않은 말들

강선미

기사는 할 말이 있다. 제프리 초서(Geoffrey Chaucer)의 『캔터베리 이야기』(*The Canterbury Tales*)가 말하는 사람들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이야기하기 게임”(tale-telling game)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사의 이야기는 기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사 정체성”(chivalric identity)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 그러므로 『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를 초서의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읽어서는 곤란하다(Patterson 168). 이것은 “기사의 이야기”다.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기사가 해버린 말에 대해서는 너무도 많은 해석이 제시되었다. 찰스 머스캐틴(Charles Muscatine)은 “이 시의 구조를 특징짓는 질서가 또한 의미의 핵심이기도 하다”(Order, which characterizes the structure of the poem, is also the heart of its meaning; 919)고 주장하며 테세우스(Theseus)를 무질서에 맞서 질서를 정립하는 이상적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놓았고, 리 패터슨(Lee Patterson)은 그에 맞서 기사와 초서를 분리하여 기사는 “기사도 정체성”(chivalric identity)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초서는 그 시도가 현실과 모순을 일으킴을 보여준다는 신역사주의 비평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읽는 방법에 여성주의 시각을 더하려고 할 때 “집으로 향하는 길에 폭풍”(the tempest at hir hoom-comynge; *KnT* 884)¹⁾을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디를 가야 할지는 명징한데, 그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김현진이 지적한 것처럼 “가부장제 질서의 나신을 바라보며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이고 그 나신이 가부장제임을 아예 부정하는 것은 눈에 뻘히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만 보라고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1). 이 난관을 타파하는 한 가지 방법은 기사가 한 이야기보다 하지 않은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가부장적이고 “왜” 가부장적인지를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1) 『기사 이야기』, 『테바이드』(*Thebaid*), 『훌륭한 여인들의 전설』(*The Legend of Good Women*)은 행수, 『테세이다』(*Teseida*)는 권수와 연수, 다른 책들은 쪽수로 인용을 표기한다.

1. 기사가 원하는 것

패터슨이 지적하듯이, 기사가 테세우스를 이상적인 지도자로 보고 기사도를 문명화를 위한 힘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198). 하지만 초서는 테세우스의 우월함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는 않으며(202), 기사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기사의 이야기에 미묘한 아이러니를 불어넣는다(Laskaya 67). 기사는 기사 정체성을 옹호하고 “자기 정당화”(self-legitimization; Patterson 169)를 실현하기 위해 “이야기” 속에서 이상적 질서와 “영웅적 남성성”(heroic masculinity)을 구현해낸다. 이때 기사가 아서왕과 기사들이 등장하는 로맨스가 아니라 “영웅적 과거”(heroic past)로부터 이야기를 빌어와야 했다는 사실이 기사가 처한 곤경을 잘 드러내준다(Laskaya 67).

중세의 귀족들이 현실의 고통스러운 불안전함을 잊기 위해 귀족들의 고상하고 영웅적인 삶이라는 환상에 매달렸던 것처럼(Huizinga 80) 기사는 현실에 부재하는 이상적인 기사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고대의 영웅을 소환한다. 그의 이야기는 “자기 정의”(self-definition)이고 “자기 발화”(self-articulation)이며 불안한 기사 정체성을 안정화하려는 시도이다(Patterson 169, 175). 기사가 이상적인 영웅으로 제시하는 것은 테세우스이지만 변화하며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두 명의 인물은 아르시테(Arcite)와 팔라몬(Palamon)이다. 이 두 기사가 보이는 격렬한 내면의 변화, 즉 정체성의 소멸과 형제 간의 반목에서 출발해 화해와 남성적 친족 구조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기사가 정녕 그려내고 싶은 이야기이다.

기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랑을 소재로 함에도 불구하고 등장 인물들의 섹슈얼리티는 부정되거나 숨겨진다. 이성에 대한 욕망은 부재하거나 혹시 존재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는 부정당하며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 남성중심적인 친족 구조 속으로 편입되기 위한 기제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기사가 서술하는 남녀관계와 사랑은 남성 주인공이 변덕스럽고 냉정하며 때로는 기혼인 여성의 사랑을 갈망하는 궁정풍 사랑(courtly love)의 전통과 많은 차이가 있다(Lewis 12-13). 아르시테와 팔라몬이 같은 여자를 좋아해 남성 섹슈얼리티가 과잉될 때,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대상을 꿈꿀 때, 사랑과 욕망은 비참한 결과를 부른다. 에밀리에 대한 사랑과 소유욕은 “엄숙한 맹세로 서로에게 묶인 형제”(brother / Ysworn ful depe, and ech of us til oother; 1131-32)인 아르시테와 팔라몬을 질투와 적의로 반목하게 한다. “사랑으로 인해 사람이 만든 법과 법령은 모든 계층에서 늘상 파괴되고”(positif lawe and swich decree / Is broken al day for love in ech degree; 1167-68) 아르시테는 자신의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기사 정체성을 상실한 채 시종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모든 파괴, 무질서와 혼돈은 기사가

바라는 것이 아니다.

기사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 원전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 밖 모습,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도 정보를 가지고 있다(1463-64, 1198-201). 기사가 테세우스를 질서의 수호자인 영웅으로 형상화할 때, 그의 욕망이 초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아마존을 정벌하고 길들인 자로서 문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리아드네(Ariadne), 헬렌(Helen), 코레/페르세포네(Kore/Persephone)와 안티오페(Antiöpe)를 납치하고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건사고를 일으킨 인물이기도 하다(Mills 30-31). 테세우스가 드러냈던 과도한 욕망과 섹슈얼리티는 결혼과 친족구조를 통한 가부장제의 안정과 그를 통한 사회 구조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 이것이 기사의 이야기 속에서 테세우스를 위시한 모든 남성들의 욕망이 거세된 이유이고, 에밀리가 진공관에 든 것 마냥 섹슈얼리티가 부재하는 인물로 변형된 이유이다.

2. 에밀리와 에밀리아

기사가 자기 이야기의 원전으로 삼은 보카치오의 『테세이다』는 테세우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12권의 서사시로 테세우스의 영웅적 면모와 에밀리아(Emilia)의 결혼을 주요 소재로 삼는다. 기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테세이다』의 일부를 요약, 생략하고 변형한다. 기사는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보카치오(Giovanni Boccaccio)의 『테세이다』 1~2권 부분을 간략하게 축소해서 전해준다. 테세우스가 아마존을 정복하고 히폴리타와 결혼하는 부분이다. 김현진은 “남성의 지배에 반기를 들어 남편을 살해하고 여성들만의 왕국을 건설한 아마존족의 이야기를 시간 핑계 삼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여성의 위협적인 존재를 서사의 표면에서 지워버리려는 가부장제적인 발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테세이다』 1~2권의 내용이 테세우스의 무력의 우위가 낭만적 사랑과 결혼의 이상으로 포장되고 여성이기를 거부하는 아마존족이 패배”하고 다시 아름답고 전형적인 여성들로 돌아가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즉, 기사가 아마존의 이야기를 상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카치오의 이야기에 가부장적 검열을 입힌 것이라고 단순히 결론내기 어렵다는 것이다(101).

하지만 기사는 이 장면을 생략해야만 했다. 그것은 남성의 지배를 거부한 아마존 여성들의 용맹한 모습을 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다. 이 검열에는 위에 언급된 것과는 다른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다. 기사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와중에도 오쿠파티오(occupatio) 기법을 통해 생략하는 내용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훑고 지나간다. 기사가 말하기 기법으로서 오쿠파티오를 자신의 의도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점은 기사가 간략하게 짚고 지나가는 사건들의 상세한 내용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만들어, 기사가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간과하게 한다. 독자는 「기사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테세우스가 히폴리타와 결혼해 그녀를 데리고 오면서 “그녀의 여동생 에밀리도”(And eek hire yonge suster Emelye; 871)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다. 기사는 이 과정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은 전혀 의문을 가지지 않거나 으레 히폴리타(Hippolyta)와 에밀리가 자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사가 짧게 언급한 아마존 정벌기에는 테세우스가 히폴리타의 여동생 에밀리를 처음 본 순간과 그녀에 대해 품었던 생각이 생략되어 있고, 이 장면은 에밀리,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사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성적 긴장감을 암시한다. 『테세이다』의 내용은 이렇하다.

아름다운 과부와 처녀들 사이 한 소녀가 그 장소에 있었다. 그녀의 사랑스러움은 장미가 봄꽃들을 능가하듯 다른 여인들을 능가했다. 테세우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는 “저 소녀는 여왕의 여동생이며 에밀리아라고 불리지요”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 아름다운 작은 소녀는 그에게는 상당히 어려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누구보다 테세우스를 기쁘게 했다. 그는 자신의 처분 아래 그녀를 아카테스의 신부로 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There was one maiden in that place among the other beautiful widows and virgins, whose loveliness surpassed that of all the others as the rose surpasses the spring flowers. When Theseus saw her among the others, he inquired who she was. He was told, “The maiden is the sister of the queen and is called Emilia.” The beautiful little damsel pleased Theseus not the least of those who were there, although she seemed quite young to him. He made up his mind that he would give her to Achates as his wife under his administration. (1.136-37)

테세우스는 히폴리타와 결혼한 후에 에밀리아를 처음 보았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묻기까지 했다. 에밀리아가 “그에게는” 너무 어린 것 같았다는 표현은 에밀리아의 나이에 대한 평범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테세우스가 취하기에 너무 어리다는 뜻을 가질 수도 있다. 테세우스가 에밀리아가 유독 아름답다고 느끼며 마음을 쓰는 것은 그녀가 히폴리타의 여동생이기 때문은 아니다. 에밀리아는 히폴리타의 동생이라고 전해지는 것 외에는 언니와의 유대나 교류를 거의 보여주지 않으며, 히폴리타의 동생이라기보다 한 명의 아름다운 미혼 여성으로 제시된다. 위 구절은 성적 긴장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지만 테세우스가 히폴리타와 함께

에밀리아를 아테네로 데려가는 이유가 자매간의 애정에 더해 에밀리아의 미모에 대한 테세우스의 개인적 판단에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²⁾ 테세우스를 중심으로 한 이들의 삼자 구도는 “히폴리타는 2륜 전차 안에서 테세우스의 곁에 서 있었고, 반대쪽에는 에밀리아가 있었다”(Hippolyta . . . stood in it [chariot] on one side of him [Thseuse], and on the other was Emilia)는 그들의 귀향 장면에서도 당연한 듯 제시된다(*Teseida* 2.22).

「테세이다」의 에밀리아는 기사가 무성적인(asexual) 모습으로 그려내는 에밀리아와 섹슈얼리티와 성격에 있어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아르시테와 팔라몬이 그녀를 처음 보고 반하는 순간 에밀리아와 에밀리아가 보이는 반응은 두 작품에서 현저하게 다르다(Martin 44).

그녀는 그 “아어!”를 흘려 듣지 않았으며 비록 그녀가 성숙한 사랑에는 너무 어렸음에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사랑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스스로를 더욱 아름답게 느꼈으며 이제는 정원으로 갈 때마다 자신을 더욱 치장하는 것이었다.

She was not oblivious of that “Alas!” and although she was too young for mature love, still she understood what it meant. As it seemed to her that she knew that she was indeed liked, she took pleasure in it, and considered herself more beautiful, and now adorned herself the more every time she returned to the garden. (3.19)

자신의 바라보는 남자들의 모습을 의식하고 스스로를 더욱 치장하는 에밀리아와 달리 「기사 이야기」의 에밀리아는 두 남자가 자신을 두고 다투는 것을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그들의 싸움을 목도하고서야 처음 알게 된다. 에밀리아는 아르치테스(Arcites)와 팔라이몬(Palaemon)이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하거나 애처로운 표정을 드러내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여성적 허영을 가진 인물로 묘사된다(*Teseida* 3.30-32). 그럼에도 에밀리아는 기민하고 현명한 특징들 또한 지녔다. 그녀는 아르치테스가 펜테우스(Pentheus)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다시 나타났을 때 유일하게 그의 정체를 알아보지만 테세우스에게 고하지는 않는다(4.54-58). 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순진한 “뺨꾸기나 토끼”(a cokkow or an hare; *KT* 1810)처럼 자신에 대한 사랑도 모르고 있는 에밀리아와 달리 에밀리아는 개인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여성이다. 실로 그녀는 매를 손목에 얹고

2) 「테세이다」에서 아카테스는 아테네로 귀환한 이후 내내 부재하다가 에밀리아가 결혼할 때에 이르러 별다른 설명 없이 예전에 죽었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것은 테세우스가 아카테스를 빌미로 에밀리아를 데려온 것이 개인적 관심의 반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냥을 즐기는 호전적이고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며(5.78) 다이애나(Diana)에게 기도할 때도 자신이 남자와의 사랑보다 화살통을 들고 사냥을 선호하는 아마존임을 강조한다(7.81).

물론 이것을 두고 보카치오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해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일레인 헨슨(Elaine Tuttle Hansen)은 「기사 이야기」의 에밀리가 테세우스 자신이 결혼할 수 없는 “여분의 여성”(extra female)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통제되어야 하는 섹슈얼리티라고 주장한 바 있다(220). 에밀리를 축으로 설명하자면 「테세이다」 또한 아카테스의 신부로 데리고 왔던 에밀리아가 그의 죽음으로 여분의 여성으로 남게 되자 결혼을 통해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이야기다. 그 외중에 그녀가 앞부분에서 주로 보였던 성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에서 수줍고 정숙한 여인의 모습(9.40), 즉 아르치테스를 죽게 하는 원인이 되느니 태어나는 순간 죽는 게 나왔음을 외치는 적절한 신부의 모습(10.72)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보카치오 또한 남성적 질서를 세우는 데 공모한다고 할 수 있다.

3. 에밀리의 무성성(無性性)

「테세이다」와 「기사 이야기」가 여성 섹슈얼리티 잉여의 가부장적 통제라는 틀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에밀리아와 에밀리가 두 작품에서 보이는 섹슈얼리티의 차이는 의문을 낳는다. 기사는 에밀리아를 극도로 존재감 없고 무성적인 에밀리로 바꿔놓았다. 기사가 에밀리의 섹슈얼리티와 목소리를 무(無)에 가까운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머스캐틴(Charles Muscatine)은 기사에게 동조하듯 에밀리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며 “「기사 이야기」의 여인은 단지 귀족 남성의 욕망을 상징한다”(The lady in the Knight's Tale is merely a symbol of the noble man's desire; 923)고 말한다.

여성주의 비평의 관점에서 기사가 에밀리를 순진하고 무지한 무성적 존재로 바꾼 채 그녀에게 목소리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때 에밀리가 단 한 번 자신의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장면은 당연히 주목 받고, 그녀의 숨겨진 진심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간주된다. 비록 그녀의 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에밀리가 결혼을 거부하며 처녀로 남고 싶다고 기도하는 부분이다.

정절의 여신이며, 당신은 저의 소망을
잘 아십니다. 평생을 처녀로 남고자 하며
연인도 부인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당신의 수행원이자
처녀로 남아 사냥을 즐기며

거친 숲을 헤매고 싶어하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지 않음을 아십니다.
 여신이며, 지금 저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세 겹의 신성을 사용해 저를 도울 수 있습니다.

Chaste goddess, wel wostow that I
 Desire to been a mayden al my lyf,
 Ne never wol I be no love ne wyf.
 I am, thou woost, yet of thy companye,
 A mayde, and love hunting and venerye,
 And for to walken in the wodes wilde,
 And noght to been a wyf and be with childe.
 Noght wol I knowe companye of man.
 Now help me, lady, sith ye may and can,
 For tho thre forms that thou hast in thee. (2304-13)

프리스릴라 마틴(Priscilla Martin)은 에밀리가 결혼을 거부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귀족 소녀의 수줍음이나 성녀 같은 관능성의 부재로 읽히는 것을 비판하며 에밀리가 아마존임을 강조하고(51), 김현진은 에밀리의 기도 장면이 가부장제의 “봉쇄와 검열이 여성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은 무질서한 욕망에까지지는 힘을 미칠 수 없음”을 예시한다고 주장한다(99). 하지만 기사가 강조하는 에밀리의 무성성은 일관된 관점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기사의 검열이 여기서만 유독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에밀리의 성격과 태도를 모두 바꿀 수 있었던 기사가 남성 질서에 반항하는 기도는 허용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힘들다. 만약에 이 기도의 앞부분이 에밀리의 “진짜 목소리”라면, 결혼 거부에 이어지는 “만약 제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 제가 그 둘 중의 하나와 맺어져야만 한다면 저를 가장 원하는 이에게로 저를 보내소서”(if my destyne be shapen so / That I shal nedes have oon of hem two, / As sende me hym that moost desireth me; 2323-25)라는 기도의 뒷부분은 여전히 미해결의 난제로 남는다. 기도의 앞부분은 높게 평가하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의 여자들이 달리 어쩔 수 있었겠냐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것은(Martin 52) 에밀리의 재현에 대한 안일한 접근이다.

에밀리가 처녀로 남고 싶다고 기도하는 장면은 여성주의 비평 이전의 평가처럼 표면적 의미에서는 섹슈얼리티의 부재이고 남성에 대한 무관심이 맞다. 다만 그것이 에밀리의 기도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헨슨의 주장처럼, 중요한 것은 여성의 존재가 테세우스와 남성 화자에 의해서 부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재정의되고 그럼으로써 전형성을 유지하는 특정한 방식이다(216-17). 헨슨은 에밀리의 무성성과

이성애적 관계에 대한 무관심이 남성 정체성과 지배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금지 당하기 위해 더해진다고 했지만(221), 이와 반대로 에밀리의 무성성은 기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처녀의 태도이다. 기사는 에밀리가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안전하고 완전하게 포섭되기 이전까지 어떤 성적 욕망이나 요구도 없고 섹슈얼리티에 관해서는 절대로 무해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가부장제의 질서에 반항하지 않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수용하는 여성이기를 바란다.

4. 어쩌면 에밀리는 위험할지도

기사가 이토록 에밀리의 무성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테세우스가 아르시테나 팔라몬과는 달리 사랑으로 인한 고통과 혼돈에 구애 받지 않는 질서의 수호자로 그려지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사 이야기」는 에밀리아라는 히폴리타의 동생을 등장시킨 뒤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테세이다」의 골격을 답습하고 있는데, 「테세이다」의 출전이라 볼 수 있는 스타티우스(Statius)의 「테바이드」 12권에서는 에밀리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³⁾ 그렇다면 에밀리아는 누구인가? 소피 밀스(Sophie Mills)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테세우스가 아마존에서 납치해와 부인으로 삼은 여인은 안티오페(Antiope)다. 여기에도 에밀리아는 등장하지 않는다. 보카치오는 그의 다른 책 「유명한 여인들」(*Famous Women*)에서 히폴리테(Hippolyte), 즉 히폴리타가 안티오페의 여자형제이며, 테세우스가 데리고 간 여자는 안티오페가 아닌 히폴리타라고 이야기한다(82-85). 「유명한 여인들」에도 에밀리아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신화적 과거를 추적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은 명백해진다. 테세우스가 자매 사이인 히폴리타와 안티오페 둘 중의 한 명과 결혼했다는 사실이고, 그가 자매간인 두 명의 여자와 위험한 삼자구도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것이다. 보카치오의 테세우스는 히폴리테와 결혼하고 그녀의 여동생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켜 제도 속에 안전하게 편입시켰다. 보카치오의 이름 아래 테세우스는 자매를 농락하는 바람둥이 납치자가 아니라 자매와의 불균형적인 삼자 구도 속에서 결혼 제도를 통해 자신과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규범화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기사는 테세우스가 에밀리아를 아름답다고 여기는 「테세이다」의 첫 장면을 아예 생략해버린다. 보카치오가 에밀리아를 등장키시고

3) 여기서 히폴리타는 임신한 것으로 등장하지만(12.635-38) 「테세이다」와 「기사 이야기」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히폴리타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히폴리투스일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이는 테세우스의 섹슈얼리티로 인한 부계질서의 단절 —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 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수 있다. 「테세이다」와 「기사 이야기」 전체에서 테세우스와 히폴리타의 아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그녀의 섹슈얼리티를 노출시킨 뒤에 그것을 통제한 반면 기사는 에밀리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아예 침묵하고 싶어한다.

기사는 테베 여인들의 간청을 수락하여 크레온(Creon)을 벌하리 출정하는 테세우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의 창기들이 “그가 크레타에서 죽었던 미노타우르스의 거대한 머리로 장식되어”(in which ther was y-bete / The Minotaur, which that he slough in Crete; 979-80) 있다고 말한다. 이는 기사가 테세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초서는 테세우스가 크레타 섬에서 미노타우르스를 죽일 때 있었던 일을 『훌륭한 여인들의 전설』에서 노래한 적이 있다.⁴⁾ 테세우스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데 대한 보답으로 아리아드네와 결혼하고 그녀의 동생 파이드라(Phaedra)도 아테네로 같이 데리고 가 그의 아들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하고는(2088-103) 어떤 섬(Naxos)에 상륙해서 배신을 자행했었다.

그의 아내 아리아드네가 잠들어 있는 동안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보다 사랑스럽다 생각하여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배로 이끌고는
배신자처럼 몰래 달아났다.
아리아드네가 잠들어 누워있는 사이
그의 고국을 향하여 날쌔게 바다를 달렸다.

Whan Adryane his wif aslepe was,
Fot that hire syster fayrer was than she,
He taketh hire in his hond and forth goth he
To shipe, and as a traytour stal his wey,
Whil that this Adryane aslepe lay,
And to his contre-ward he sayleth blyve — (2171-76)

기사가 테세우스의 크레타 섬 무용(武勇)을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와 파이드라 두 자매 사이에서 일으킨 연애 사건 또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거기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테세우스가 사랑에 대해 큰

4) 플로렌스 퍼시발(Florence Percival)은 히폴리타가 낳게 되는 아들 히폴리투스(Hyppolytus)이고 파이드라가 테세우스와 결혼한 상태에서 그와 사랑에 빠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사 이야기』의 사건이 크레타의 아리아드네 이야기보다 먼저 발생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하지만(185), 기사의 이야기에서 크레타 섬의 사건이 먼저 발생한 것은 확실하다. 사건의 개연성을 따져 묻는다면 당연히 퍼시발의 의견이 높은 설득력을 가진다. 기사가 크레타 섬 사건이 먼저 일어난 양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것은 그가 신화적 출처를 단순요약 하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불충을 저지른 것”(Theseus the grete untrouthe of love; LGW 1890)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테세우스를 축으로 구성되었던 삼각관계는 이후 파이드라를 중심으로 테세우스와 그의 아들 히폴리투스가 이어지는 또 다른 삼각관계를 이루게 된다. 파이드라는 테세우스의 부인임에도 전처의 아들인 히폴리투스를 사랑하지만 히폴리투스가 자신을 거절하자 테세우스에게 히폴리투스가 자신을 강간했노라고 거짓으로 고한다. 테세우스는 파이드라 말을 믿고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Ovid 366-68). 애정의 대상이 바뀌고, 금지된 대상을 욕망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가운데 왕국은 혼란에 빠지고 질서는 온데간데 없어지며 아버지와 아들 간의 남성 연대는 지푸라기처럼 바스라진다. 이 사태의 거대한 위협성은 단순히 남성 간의 신뢰가 사라지고 서로를 질투, 증오하게 된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대가 끊기고 가부장적 질서의 계승이 불가능해지는 데 있다. 불균형한 섹슈얼리티에서 비롯된 한낱 변덕스러운 욕망이 가부장적 친족 구조의 파괴를 불러오는 것이다.

『테세이다』에는 한 남자와 두 여자, 특히 그 두 여자가 자매일 때 발생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나이팅게일 신화가 비유로 등장한다. 보카치오는 아르치테스가 정체를 숨기고 에밀리아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의 기쁨을 테레우스(Tereus)가 필로멜라(Philomela)를 트라키아(Thrace)로 데리고 가도록 허락 받았을 때의 기쁨에 비유한다(4.54). 테레우스는 프로크네(Procne)와 결혼한 뒤 그녀가 여동생 필로멜라를 그리워하자 부인을 위해 그녀의 여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 떠난다. 하지만 테레우스가 필로멜라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의 미모에 반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필로멜라를 자신의 왕국 트라키아로 데려가고 싶다는 설득은 더 이상 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 된다. 결국 테레우스는 필로멜라를 강간하고 이 처참한 비극이 밝혀졌을 때 분노한 프로크네는 테레우스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이티스(Itys)를 요리하여 그에게 먹인다. 한 제왕의 두 자매에 대한 성적 욕망이 아들의 죽음과 부계 혈통의 단절로 귀결되는 이 이야기는 테세우스의 그것과 닮았다. 테레우스의 기쁨은 가부장적 가계와 남성 관계에 처참한 파괴를 불러왔고 이에 비견되는 아르치테스의 기쁨 역시 팔라이몬과의 목숨 건 싸움과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져 남성 연대의 단절과 파괴적 결말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일견 낯설어 보이는 이 둘의 비유는 개연성을 획득한다.

『테세이다』에서 에밀리아의 존재는 남성연대를 위협하는 데 즉각적으로 기여하지는 않는다. 아르치테스는 에밀리아를 보고 팔라이몬에게 이 아름다움을 같이 즐기자고 권하고 두 사람은 에밀리아를 같이 사랑하며 서로를 위로한다(3.12-13, 26). 두 사람이 결국 결투에 임하는 것도 팔라이몬이 마르스(Mars)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며 아르치테스는 자신의 일격으로 팔라이몬이 쓰러지자 에밀리아를 사랑했던 것을 후회하기까지 하는 형제애와 기사적 태도를 보여준다(5.70-71). 하지만 기사의 이야기에

나오는 두 테베인들은 “테세우스가 바로잡아 문명화시켜야 하는 비합리성을 상징하며”(they embody an irrationality that Theseus must chasten into civilization; Patterson 200) 그들의 사랑은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 연대라는 더 높은 체제 속에 복속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테세우스와 히폴리타 사이와 아르시테와 팔라몬 사이에서 항상 불안 요소로 존재하는 에밀리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통제되고 완벽하게 박제되어야 한다.

5. 남성 연대를 위하여

수전 쉬버노프(Susan Schibanoff)는 같은 여성을 좇는 것이 이성애 남성 간의 동성사회적(homosocial)인 연대를 공고하게 한다는 이브 세지윅(Eve Kosofsky Sedgwick)의 주장을 빌어와 이것을 아르시테, 팔라몬과 에밀리의 구도에 적용시키지만 (52) 이들의 관계는 수전 크레인(Susan Crane)의 분석처럼 좀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 에밀리에 대한 욕망 자체는 “서로 팔을 끼고 나란히 누워 있던 두 명의 젊은 기사”(Two yonge knyghtes liggynge by and by, / Bothe in oon armes; 1011-12)였던 아르시테와 팔라몬의 형제애에 반목과 적의를 불러오지만 테세우스가 형식을 갖춘 토너먼트를 마련함으로써 이 둘은 공정한 게임(fair play)이라는 기사적 코드를 공유하게 되고 형제애 관계로 재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Crane 52-53). 이것은 아르시테와 팔라몬이 그렇게나 서로의 죽음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토너먼트 이후 아르시테가 죽게 되자 팔라몬이 그것을 슬퍼하고 에밀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것을 설명해준다.

남성 연대를 회복하는 것은 아르시테와 팔라몬 뿐만이 아니다. 히폴리타와 테세우스의 결혼은 테세우스가 아마존을 정복하고 자신의 영역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 아마존을 정복하여 자신의 혈족으로 포섭하고 남성 가계를 확장한 테세우스는 에밀리를 “나의 사랑스러운 여동생 에밀리”(Emelye, my suster deere; 1820)라고 부르며 그녀를 통해 아르시테와 팔라몬의 존경과 사랑을 얻는다. 자신의 나라와 혈족을 멸망시킨 원수임에도 그녀를 차지할 기회를 마련해준 데 대해 그들은 테세우스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표한다(1877). 이러한 남성 중심의 친족관계를 만드는 과정에서 「테세이다」에 등장한 상호적인 애정이나 위험한 섹슈얼리티는 필요 없으며, 그것이 담고 있는 파괴와 무질서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차라리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세지윅이 게이 루빈(Gayle Rubin)과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논의를 인용하며 주장하고 있듯이, 여성의 교환으로 인한 관계는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가 아니라 두 집단의 남성 관계를 성립시킨다(25-26). 테세우스는 에밀리를 통해 아르시테와 팔라몬을 진심으로 자신에게 복속시키고 나아가 외국과 연맹할 필요가 생기자 에밀리를

이용해 테베의 왕권을 다시 차지한 팔라몬을 자신의 혈족으로 끌어들인다. 에밀리가 침묵하는 가운데 이 둘은 기쁘게 관계 맺는다.

6. 결론

가장 내보이기 두려운 치부를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듯이, 기사가 「테세이다」에서 가장 많이 변형하고 삭제한 에밀리의 존재와 그녀가 가진 특성이야말로 기사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일지 모른다. 에밀리가 가진 잉여의 섹슈얼리티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과 여성 섹슈얼리티로 인한 가부장적 질서의 혼란을 그토록 두려워했기에 기사는 에밀리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고 그녀의 무성성을 칭송했다. 침묵과 삭제는 두려움의 반증이고, 기사의 침묵 뒤에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은 여성의 박제된 섹슈얼리티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필사적인 통제와 변형을 통해 이상적인 모습으로 제시되는 것임을 알려준다.

잔인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특정한(particular) 이상을 노래하는 것은 기사의 특수한 위치와 자기 계급의 이익을 반영한다. 모든 사람이 여기 동의할 수는 없음을 반증하듯이 「기사 이야기」에 대한 반응이 “이야기”의 형태로 실타래처럼 풀려 나온다. 기사가 바라고 이야기를 통해 필사적으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고상한 이상은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조롱되거나 비판 받는다. 기사가 이야기를 끝내자마자 방앗간 주인(Miller)은 나도 고상한 이야기를 하겠노라며 취한 채 말을 잇는다. 그 고상한 사랑 이야기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사이에 둔 두 남성 사이가 배신과 기만으로 점철되는 코미디이다. 여주인공 앨리슨(Alisoun)은 자신의 욕망을 깨닫고 실현하는 데 거침이 없으며 그 와중에 가정과 가부장제의 가치가 흙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 바쓰의 여인(the Wife of Bath)은 여성의 입장에서 기사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여성의” 이야기를 한다. 순례를 떠나는 인물들은 타인이 말하고 말하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어나가며, 변화하는 현실의 울퉁불퉁한 표면 위에서 각자의 이야기는 교섭하고 경합하고 갈등한다.

Works Cited

- 김현진. 「초서의 '나약한 수소': 「기사 이야기」 다시 읽기.」 『중세르네상스영문학』 16.1 (2008): 77-111.
- Benson, Larry D., gen. ed. *The Riverside Chaucer*. By Geoffrey Chaucer. 3rd ed. Boston: Houghton, 1987.

- Boccaccio, Giovanni. *The Book of Theseus*. Trans. Bernadette Marie McCoy. New York: Medieval Text Assn., 1974. Trans. of *Il Teseida*.
- _____. *Famous Women*. Trans. Virginia Brown. Cambridge: Harvard UP, 2003
- Crane, Susan. *Gender and Romance in Chaucer's Canterbury Tales*. Princeton UP, 1994.
- Hansen, Elaine Tuttle. *Chaucer and the Fictions of Gender*.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2.
- Huizinga, Johan. *The Waning of the Middle Ages: A Study of the Forms of Life, Thought, and Art in France and the Netherlands in the XIVth and XVth Centuries*. Trans. F. Hopman. New York: Doubleday-Random, 1954.
- Laskaya, Anne. *Chaucer's Approach to Gender in the Canterbury Tales*. Cambridge: D. S. Brewer, 1995.
- Lewis, C. S. *The Allegory of Love: A Study in Medieval Tradition*. London: Oxford UP, 1976.
- Martin, Priscilla. *Chaucer's Women: Nuns, Wives and Amazons*. Houndmills: Macmillan, 1996.
- Mills, Sophie. *Theseus, Tragedy, and the Athenian Empire*. Oxford: Clarendon, 1997.
- Muscatine, Charles. "Form, Texture, and Meaning in Chaucer's *Knight's Tale*." *PMLA* 65 (1950): 911-29.
- Ovid. *Metamorphoses*. Trans. A. D. Melville. Oxford World's Classics. Oxford: Oxford UP, 1986.
- Patterson, Lee. *Chaucer and the Subject of History*. Madison: U of Wisconsin P, 1991.
- Percival, Florence. *Chaucer's Legendary Good Women*.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Schibanoff, Susan. *Chaucer's Queer Poetics: Rereading the Dream Trio*. Toronto: U of Toronto P, 2006.
- Sedgwick, Eve Kosofsky. *Between Men: English Literature and Male Homosocial Desire*. New York: Columbia UP, 1985.
- Statius, P. Papinius. *Thebaid*. Ed. and trans. D. R. Shackleton Bailey. Loeb Classical Library. Vol. 2. Cambridge: Harvard UP, 2003. 2 vols.

ABSTRACT

Emily's Disturbing Sexuality: What is Unspoken in Chaucer's *The Knight's Tale*

Seon-mi Kang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read Geoffrey Chaucer's *The Knight's Tale* in the light of Feminism because it is a definitely patriarchal and male-centered text and to say it again is not enough to criticize the text. As Lee Patterson insists, however, Chaucer and the knight have different point of views toward the ever-changing world of the late Middle Ages and *The Knight's Tale* is a reaction of a conservative knight against such transitions and his own anxiety. In his 'storytelling,' the knight reiterates a famous story of Boccaccio's *Teseida*, in which two theban cousins, who are sworn brothers as well, fall in love with an attractive and astute girl, Emilia, at the same time. Though the knight follows the basic plot and themes — one of which is the subjection of women — of *Teseida*, he omits and modifies some parts of the story. The erased scenes are when Theseus admired Emilia's beauty and when Emilia knows about her sexual attractiveness and its power. The knight found these scenes of sexual realization the most disturbing for he is aware of the dangerous influence of women's sexuality on the order of patriarchy. Actually, Theseus is the one who misbehaved in his sexual relationships with the sisters, Ariadne and Phaedra, and brought about his own son's death and the end of his paternal line. Indeed, considering the fact that Hippolyta and Emily are sisters, the knight should worry about the disconnection of the male-bond and the destruction of patriarchal order. That is why Emily is deprived of her voice and lively character, perfectly cut out like a paper-doll. Some feminist critics suggest that the one moment when Emily prays to Diana for protecting her unmarried virgin status, Emily says her true heart with her own voice which cannot be repressed by the male-dominating world. However, if the knight is the controlling consciousness

in the story is remembered, Emily is just mimicking her script to be a lady-like good girl. When she finally accepts what is given to her — the marriage to the winner of a battle — without any resistance, Arcite and Palamon, Teseus and Palamon achieve their male-bond through Emily. She is silenced again. However, the reason Emily has to be rendered silent and asexual itself clearly expresses the knight's apprehension of the instable reality of patriarchal order. He tells stories to cover up disturbing possibility, which is female sexuality in this case, but as the Miller and the Wife of Bath demonstrate in their stories, his dream is no longer possible.

Key Words Female sexuality, silence, Patriarchal order, male-bond, storytelling

